

‘청정 수산물 브랜드화’ 장흥군, 농어업소득 증대 ‘주력’

장흥형 농·수·축·임산업 비전 제시...친환경 인증 50% 목표 권역별 전략작물 지정 집단·단지화...상품화까지 단계 지원

장흥군이 ‘장흥형 농어업정책’을 통해 농어가소득 높이기에 주력한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농·수·축·임산업 육성 정책 합동 현안 점검회를 갖고, 민선 8기 후반기 ‘장흥형 농어업정책’을 통한 농·수·축·임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친환경 인증 비율 50% 달성을 통한 ‘장흥 농산물’ 차별화에 힘쓴다.

현재 장흥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1천95ha로, 전체 경지면적의 21% 수준이다. 장흥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식량 작물에 집중했던 친환경 인증 품목을 표고, 황칠, 호두, 블루베리, 딸기, 레드향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했다.

친환경 농가에 대해 인증비, 직불금, 단지장려금,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농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북부지역 친환경 비육요장 조성, 양곡 스마트저온창고 시설 구축, 스마트 APC 시설 구축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한다. 장흥군에서는 많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나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분산 재배의 한계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2025년부터는 권역·읍면별 전략 작물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전략 작물에 집중 지원을 통해 집단화·단지화를 추진한다. 집단화·단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가공과 유통 등 6차 산업화 지원으로 상품화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업인과 신규 농업인들도 지역별 전략 작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재배 확대 및 스마트 농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특히 장흥군은 전국 최초의 ‘정정해

역 특구’를 기반으로 청정 수산물 브랜드화에 나선다. 특량은 지난 2017년 정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정정해역 특구’로 지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장흥 무산김이 여의도 1.4배 면적인 412ha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장흥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김 가공시설 현대화, 김 양식 면허면적 확대, 자체 개발 무산김 종자(홍초 1:2:3호) 보급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매생이, 뽕장어, 납치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확대와 ‘장흥 벨

낙지’, 낙지 유통체계 개선 등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밖에 친환경 생태 축산을 통한 장흥한우 프리미엄화 추진, 축산분야 중점사업, 수출 500억원 달성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군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농·수·축·임산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장흥형 농어업정책’을 통해 국내 농어업소득 증가율 1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흥=노형록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누적 관람객 200만명 ‘돌파’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을 맞이 화훼 연출과 4D 어트랙션 등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샘터가든클럽 페스타 공연,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들 모습. <순천시 제공>

가을 맞이 화훼 연출...4D 어트랙션 등 체험 콘텐츠 강화

AI·에니메이션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이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달성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완성도 높은 정원 기반 위에

첨단 미디어아트쇼 ‘스페이스 브릿지’와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 등 실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거듭났다. 특히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스페이스 브릿지’는 광활한 우주에너지와 순천만습지의 생명에너지가 만나는 연

출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형 콘텐츠로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서 정원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총 311개 기관·단체에서 2만4천여명이 다녀가며 체험 학습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추석 연휴 등 본격적인 성수기인 가을 시즌을 앞두고 국화, 코스모스를 비롯해 그 어느 때보

다도 강렬한 색감과 진한 향기로 가득한 화훼 연출로 가을풍경을 선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이벤트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9월부터 10월 두 달간은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재즈 선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연들로 가득한 ‘어썸 재즈 페스타’가 열린다. 이번 페스타는 재즈 기획브랜드 공연과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특별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기획되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17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특별한 추석 이벤트를 준비했다. 퓨전 국악 등 특별 공연과 팔씨름, 딱지 배틀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에니메이션 카페이드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4D 콘텐츠 체험관 시크릿 어드벤처

에서도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 추석연휴 후 5일간 슈퍼히어로 캐릭터 역할놀이 ‘캐릭터 대소동’ 이벤트가 마련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개울길 광장에 발을 담그며 정원의 푸르름을 즐겼다면, 다가오는 가을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오색 빛깔의 풍요로운 정원에서 풍성한 문화 콘텐츠로 마음의 안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자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돌입

여순사건 특별법 등 결의안 채택...6일까지 행감 계획 수립

여수시의회는 1일 “지난달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제240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5분 발언, 건의안·결의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며 3일에는 각 위원회별 현장 활동이 예정돼 있다. 4·5일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한다.

시정 질문은 5명의 시의원이 ▲웅천지구 약취 문제 해결 방안 ▲여수시 청년 정책 실태와 문제점 ▲화양면 물량장 향후 활용 계획 ▲2026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현황 및 연계 사업 점검 ▲묘도 조명연습수군 테마 공원 조성 ▲경도 연륙교 건설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6일 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는 종료된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

정과 기획단 게임 및 인력·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5분 발언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명예 도로’ 지정 제안 ▲여권권역 관광 산업 개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 ▲문수 부영 1단지 재건축 촉구 ▲노인·청년이 함께 행복한 여수시 ▲여수시 재정 관리 관행의 주제로 발언대에 나섰다. 백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름 휴가철 휴일도 반납한 채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집행부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로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 영예

광주·전남교통·사회안전대축전서...안전교육·캠페인 등 높은 평가

담양군은 1일 “지난달 29일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에서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로 16회차를 맞은 이번 대축전에서 담양군은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담양군은 관광객과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민간사회단체 및 경찰서와 함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전남교통연수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협약을 맺고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집중했다.

특히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죽녹원, 국수거리, 관광제림 등 주요 관광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주말과 연휴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기자

장성군, 사과 탄저병 예방 팔 걷는다

수확기 앞둔 홍로·시나노골드 등 중점 관리

장성군은 1일 “수확기를 앞둔 홍로, 시나노골드 재배 농가에 40ha규모 탄저병 긴급 예방약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8월 중순까지 이어진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9월 수확기를 앞둔 중생종 사과에 대한 탄저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생종은 재배 시기가 조생종과 만생종 사이에 있는 품종으로 홍로와 시나노골드가 대표적이다. 탄저병 병원균은 주로 빗물을 통해 전염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감염되면 과일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8월 한 달 동안 탄저병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지역 내 과수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 관리를 시행했다. (사진) 만생종인 부사의 경우 9월 중 탄저병 약제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곡성군, ‘신품종 단감’ 육성

선진농가 견학...50ha 재배 목표

곡성군이 신품종 단감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태추’와 ‘감풍’ 등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해 단감 재배 농업인 30여명과 고흥·구례군의 감 선진농가를 견학했다. (사진)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신품종 단감의 전정 방법, 적과 기술, 토양 관리 등 세부적인 재배 기술을 학습했으며 특히 ‘태추’, ‘감풍’ 품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배 관리법에 대해 집중 탐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신품종 단감 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한 곡성군은 현재 72농가 23ha규모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가운데 2025년까지 50ha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공동선별 출하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신품종 단감 재배 단지 육성을 통해 추석 시장과 고품질 단감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재배기술 지도와 교육을 통해 곡성군을 전국 최고 품질의 단감 생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추’와 ‘감풍’ 두 신품종은 기존 ‘부유’ 품종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품종은 ‘부유’보다 과실 크기가 크고(380-413g), 수확 시기가 10일 이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곡성=김영철기자

광양시, 상습 체납차량 주·야간 집중 단속

19일부터 3개 단속반 투입...번호판 영치·공매 예정

광양시는 1일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및 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도심지역의 체납 차량 2천46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야간 3개의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습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체납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상습 체납 차량이 일소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